액트로 (290740)

기업 탐방노트 |

NR

목표주가	NR
현재주가	10,500 원
시가총액	1,051 억원
KOSDAQ (09/11)	630.37 pt

이익률 15% 부품사, 새로운 트렌드 중심에 서다

Analyst 이왕진 02. 3779 8832 wangjin4268@ebestsec.co.kr

컨센서스 대비

상회	부합	하회

Stock Data

90 일 일평균거래대금	26.97 억원
외국인 지분율	2.1%
절대수익률 (YTD)	57.3%
상대수익률 (YTD)	64.0%
배당수익률 (19E)	3.8%

재무데이터

(십억원)	2015	2016	2017	2018
매출액	30	34	91	106
영업이익	4	3	14	17
순이익	3	1	7	14
ROE (%)	n/a	16.0	43.0	30.4
PER (x)	n/a	n/a	n/a	7.4
PBR (x)	n/a	n/a	n/a	1.7

자료: 액트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19년과 '20년은 가이던스 기준

Stock Price

기업개요: 이익률 높은 액츄에이터 전문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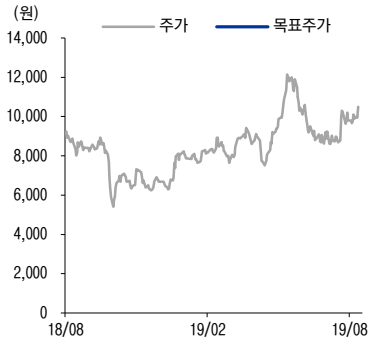
- 액트로는 삼성전기 출신 인원들이 설립한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업체로써, 2012년에 설립되어 2018년에 상장되었다. 동사의 주요 판매 제품군은 스마트폰 카메라에 탑재되는 AF, OIS, IRIS 액츄에이터 등으로 2분기 기준 동사의 전체매출에서 액츄에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97%에 달한다. 동사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14.5%로 부품사 중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는 동사가 공정장비를 내재화 함과 동시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투자포인트: 광학줌 수혜와 중국 ODM 리스크 Free

- 동사의 투자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1) 3D 센서에 이어 트렌드가 될 광학줌(prism folded zoom)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동시에, 2) 중국 ODM 확대로 인한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부품사들의 실적은 스마트폰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멀티카메라 트렌드가 시작된 이후로 카메라 관련 업체의 실적이 고성장 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당사는 트렌드의 기준을 글로벌 1tier 업체(삼성전자, 애플, 화웨이)들이 특정 변화를 각 사의 플래그십에 반영하였을 때, 그 변화를 트렌드로 간주하는데, 3D 센서에 이은 다음 트렌드는 광학줌(prism folded zoom)이라 전망된다. 이미 화웨이 P30 Pro에 탑재된 광학줌은 삼성전자의 내년도 플래그십, 애플은 내후년 신모델에 탑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학줌 모듈에는 새로운 형태의 액츄에이터가 탑재되어야 하는데, 기존 카메라 모듈과 달리 길이가 긴 가로형 구조여서 크기가 크기 때문에 단가가 높다. 더하여 광학줌 모듈에 기본되는 AF+OIS 모듈 단가 역시 기존대비 높다. 동사는 액츄에이터 전문 기업으로 이미 중국향 광학줌 모듈을 납품한 이력이 있어 향후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 두번째 포인트는 중국 ODM 리스크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부품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는 중국 ODM의 영향이다. $130 미만의 제품은 채산성이 안 맞다는 삼성전자 IM 사업부의 코멘트로부터 시작된 기류는 내년 1억대 ODM 가능성을 제기한 한 뉴스에 더해져 현재 부품업체에게 가장 큰 디벨류에이션 리스크이다. 하지만 동사는 고객사의 플래그십만 담당하는 업체로써 향후 중국 ODM 확대에 따른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분석된다.

액트로 목표주가 추이



투자의견 변동내역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괴리율(%) 최고 대비	괴리율(%) 최저 대비	괴리율(%) 평균 대비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괴리율(%) 최고 대비	괴리율(%) 최저 대비	괴리율(%) 평균 대비
2019.09.16	변경.	이왕진									
2019.09.16	N.R.	NR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이왕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93.9% 6.1%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20%에서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18. 7. 1 ~ 2019. 06.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